

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공연장 확보 어찌나

오는 8월 7~15일 개최 기간 문예회관·아트센터 공사 중 “개막·콩쿠르·마에스트로 등 실내 콘서트홀 2곳 가동돼야”

봄 시즌 합덕고 교습 반응 좋아 마중물 콘서트 등은 보완 예정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스페니쉬 브라스의 동려평생학교 공연.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공

2026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8월 열리는 여름 시즌 공연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에 있는 대표적인 공공 공연장인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모두 그 기간에 공사로 인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다.

23일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등에 따르면 관악제의 분류를 잇는 여름 시즌은 참가팀 규모와 예산 면에서 봄 시즌을 뛰어넘지만 개막식 등을 치를 공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8월 7~15일 예정된 여름 시즌 동안 문예회관은 전기 공사(7월 20~8월 13일)를 진행한다. 그간 관악제 주요 공연장

으로 활용했던 제주아트센터는 무대 리모델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휴관을 공고했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시운전 기간이 필요해 8월 대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알렸다.

이에 조직위는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개막식 외에도 국제관악콩쿠르, 마에스트로 공연 등 접근성을 고려해 제주지역에서 최소 2곳의 실내 콘서트홀이 가동돼야 정상적인 행사 운영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 측은 “30년 넘게 관악제를 이어오면서 이번처럼 공연장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며 “공연장이 정해져야 참가팀별 일정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동 주최 측인 제주도와 협의해 제주시 도심의 공공 공연장 중 1곳은 관악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22일 문예회관 대극장을 주무대로 치러진 봄 시즌은

합덕고 음악과 학생 대상 스페니쉬 브라스의 마스터 클래스, 음악회 관람 경험이 적은 도민을 위한 동려평생학교 강당 공연, 관객 참여 이벤트 스탬프 투어(5개 공연)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지난해 여름 시즌 주요 프로그램에 이어 봄 시즌 개막 무대도 유료로 운영되며 공연 문화의 변화를 유도했다. 다만 개막 공연 관람료는 전년 여름 시즌보다 낮게 책정됐고 65세 이상, 4:3 유족 등 무료 입장 대상을 늘렸다.

5회째인 제주국제관악제콩쿠르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을 갖추며 김신 작곡의 ‘환상서곡 제주’ (1위) 등 윈드오케스트라를 위한 제주 민요 주제 창작곡을 탄생시켰다. 1위 입상곡은 여름 시즌 개막 때 연주된다.

양승보 조직위원장은 “개막 1주일 전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마스터 클래스는 반응이 좋아 확대할 계획이고 마중물 콘서트 참여 방식 등 일부 프로그램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합창 선율로 만끽하는 우리 앞의 봄날

서귀포합창단 정기 연주회 서귀포관악단·손가솔 참여

합창 선율로 봄을 그려낸 무대가 있다.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정기연주회다.

86회를 맞는 이번 정기 공연은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2026년 첫 정기 연주회라는 의미도 새기며 ‘봄의 기쁨’, ‘꿈과 희망’, ‘글로리아’ 세 개의 주제를 나눠 봄의 아름다움을 합창으로 빛낸다.

이날 지휘는 박위수 상임 지휘자와 오세용 트레이너가 차례로 맡는다. 연주곡은 ‘사월 한 봄날에’, ‘나

물 캐는 처녀’,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기쁨에게’를 시작으로 무반주 합창곡인 ‘은 세상을 향한 환희의 노래’,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꾸 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쟁이처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도종환 시·지혜정 작곡의 ‘담쟁이’ 등이다. 마지막 순서엔 20세기 프랑스 음악 전반기에 큰 영향을 끼친 폴랑크의 대규모 합창곡 ‘글로리아’를 연주한다. 도립 서귀포관악단과 소프라노 손가솔이 함께한다.

관람료 무료. 사전 예약제 공연으로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에서 공연 전날인 25일 오후 5시까지 예매하면 된다. 다만 공연일 현장 잔여석이 있을 경우 당일 입장도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전시 소식

강연주 첫 개인전 ‘시선’

장경순 개인전 ‘바느질하다’



강연주의 ‘곤’



장경순의 ‘제주 이미지’

제주 청년 작가 강연주 개인전 ‘시선’이 4월 1~13일 돌담갤러리에서 펼쳐진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감각을 섬세하게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화면 속 각자의 자리에 놓인 눈빛들은 스스로 서 있으면서도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작가는 색연필의 부드러운 선을 쫓아 올라 올리는 느리고도 세밀한 과정을 통해 대상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만든다.

천연 염색과 손바느질로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장에 나온다. 장경순 개인전 ‘바느질하다’를 통해서다.

오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 전시엔 작가가 지난 20여 년 작업해온 작품들을 펼쳐놓는다.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불같이 유행하고 또 금방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나만의 속도로 작업”했다는 그다. 전통을 잇는 작품부터 현대 색면 추상까지, 제주 발달이 연상되는 삼베 작품부터 작가의 내면을 담은 비단 작품까지 20여 점을 볼 수 있다.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정성을 쏟은 작품들이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거리예술제 공연팀 공개 모집

우당도서관 독서마라톤 대회

‘... 나를 돌보는 마음’ 강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선정

제주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칠성로 상점가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2026 거리예술제’ 공연 참가팀을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거리예술 공연이 가능한 무용, 음악(밴드),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다.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예정 규모는 60팀 내외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분 내외의 공연 영상 자료와 함께 이메일(qnvnfj0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한 출연팀 선발 결과는 4월 6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

이번 대회는 ‘제주시 올해의 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민 참여형 행사다. 참가 종목은 개인과 동아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개인 부문은 3km(1500쪽), 5km(2500쪽), 10km(5000쪽) 코스로 짜였다. 동아리 부문은 하프코스 20km(1만쪽), 풀코스 40km(2만쪽)로 운영된다.

하루 평균 10쪽에서 33쪽 정도 읽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 참여 부담을 낮췄다. 또한 ‘제주시 올해의 책’ 선정 도서와 후보 도서를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 ‘책심 제주’ 홈페이지 참고.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삶의 시기마다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질문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4월 북토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북토리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인생의 질문-나를 돌보는 마음’을 주제로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 도서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주제 도서는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로 정해졌다. 저자인 도연화 작가를 초청해 ‘나를 지지한다’는 것 등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도 작가는 ‘결국 행복은 찾아올 거야’ 등의 에세이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위로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부터 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이 최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호근 지역 ‘썩사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사서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그림책과 연계한 독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공간 탐방과 자료 이용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끈다. 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상
(경찰대학 수석 졸업)

송민건
조부: 송상순 · 조모: 고순자
부: 송영훈 · 모: 김윤정

대통령상(경찰대학 수석 졸업)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산송씨 지신공 수산지파 친족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진성용
(부: 진우식 · 모: 김순선)

제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
누나 진미경 · 동생 진은경, 진성건

축
CONGRATULATIONS

임 용

KAIST 석좌교수

문일철
(부: 문봉만 · 모: 오정화)

KAIST 석좌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여자고등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여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